

# 민초의 '생명력' 통해 정토실현 묘사

대하소설의 총체성은 소설의 서사 구조에서 우선 나타난다. 스토리의 수직적 구조가 연대기에 따라 혹은 여러대의 삶의 이야기로 구조화된다든가 또는 수평적 구조에서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하소설의 총체성은 이러한 소설의 표현 구조로 인해 그 총체적 의미를 확인하기 보다는 내용의 총체성에 부리를 둔다. 다양한 삶을 수용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당대와 당대를 연결하는 역사적 고리로 확대된 공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는 민중의 생각과 느낌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하소설에서는 그 소설의 서사 구조가 민중의 삶과 연결될 때 '불교이야기' 혹은 '불교적 서사 구조'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그 예가 한국 소설사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대하소설인 박경리의 <토지(土地)>와 황석영의 <장길산(張吉山)>,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太白山脈)> 등이다.

이 세편의 대하소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주체 세력인 민중이라는 역사 상상력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 시간과 상황 속에서의 인간들이 생존과 진보적 삶을 위하여 역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역사라는 거대한 폭력에 어떻게 절망하며, 그 절망의 힘을 딛고 어떻게 일어서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토지>와 <장길산> 그리고 <태백산맥>이 각각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대하소설이면서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작가의 또다른 정신 세계는 불교의 미복사상이다.

이 점을 일별하고 압축하기 위해 본 예세는 쓰여진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하소설 세편 속에 수용되어 있는 불교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 이 글은 쓰여진다.

먼저 소설 <장길산>을 살펴 본다. 소설 <장길산>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 초인 조선조 숙종 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시대는 노비등 기층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중인 계급의 성장과 양반층의 몰락이 급증하여 유랑 지식인이 기층민의 각성을 촉구하던, 조선봉건 왕조의 붕괴 조짐이 있던 혼란기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변혁의 기미와 맞물려 미복신앙과 같은 민간 신앙이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소설의 공간으로 차용하고 있으며 실록에 기록된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만큼 소설 <장길산>의 리얼리즘은 한층 돋보인다. 특히 장길산의 두차례에 걸친 역모 가담이 불교의 민중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점은 주목된다. 장길산의 첫번째 역모는 여환(呂煥)이라는 인물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진 미안성 혁명운동이다. 여환이라는 인물

## 대하 소설속에 나타난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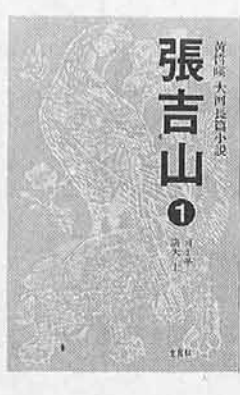
박경리씨



황석영씨



조정래씨



### 土地 생명 존중 정신, 전체 구조의 핵

### 좌·우대립 '하화중생'으로 해소 太白山脈

### 張吉山 미륵 현신의 꿈 역모 통해 조명

은 비승비속(非僧非俗)한 사람으로 독특한 불심(佛心)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불교사상의 민중화, 토속화로 이루어진 미복신앙을 가진 미륵도이다. 당대의 미복신앙은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으로서 도술전에 계신 미륵불이 56억 7천만세가 지난 뒤 하생(下生)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현신하여 정토를 실현할 것으로 믿는 민간 신앙이다.

소설 <장길산>에서 승려 운부(雲浮)를 중심으로 한 역모도 실록에 기초한 서사 구조로 옥여(玉如)등 44명의 역모 참여를 통해 시대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여환의 역모 의미와 궤를 같이 하지만 도교적 또는 무속적인 성격이 강한 민간 신앙적 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다시 말해서 소설 <장길산>의 중요한 역모사건이 성격이 다른 인물을 통해 일어나며 그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미복사상, 정토사상 구현으로 이어진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 소설은 미륵 사상을 통한 민간적 유토피아 사상이 깔려 있는 소설이다.

이에 비해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유토피아 건설에 대한 시대 대중적 사상으로 변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설 <태백산맥>이 선암사 부부지 법일(法一)과 운정 스님을 통해 불교의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선암사의 재산인 전담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절로 부터는 부주지스님의 해일이 결정되는 동시에

사회주의자로 오인받게 되는 법일의 서사를 통해 이 소설은 불교의 대중화 혹은 실천화 그리고 복지화에 대한 작가의 불교 사상을 읽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작가의 유토피아 세계에 대한 구상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소설 <태백산맥>은 우리 역사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상과 그 대립의 시대에 산 사람의 생존 문제를 다룬 총체소설이다. 이 소설은 여순반란사건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출발한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싸움, 그 틀 바깥에서 수난받는 민중상을 그리면서 작가가 종교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속 신앙과 불교 사상인데,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의 실천화와 민해의 유망사상, 그리고 정토

사상으로 그 관심을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작가의 관심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의 극복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민중이라는 기층인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에 부리를 두고 전개된다. 작가 조정래는 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좌·우 이데올로기의 변증법적 합일을 법일(法一)스님의 등장과 사상을 통해 정토의 실현 의지를 보여준다.

혹자는 <태백산맥>을 민족사적 갈등과 모순 구조로 인식하여 이데올로기 소설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총체성, 그 핵심을 차지하는 사상은 유신론적 사회 개혁과 정토 사상 혹은 용화 사상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장길산>과 <태백산맥>은 민중이라 불리는 무형의 집단과 역사 사이의 갈등과 이념적 화해를 불교 사상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데 반해 박경리의 <토지>는 개인과 역사 사이의 갈등 구조를 통해 한 인간의 운명과 의지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부영하는가를 보여준다. 소설 속에 투영된 모습이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 고풍한 유교 사상과 진보적인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역사적인 힘의 대립으로 나타나 표층적으로 볼 때, 이 소설은 불교 사상을 접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지만 소설속에 등장하는 개인의 민간 신앙적 차원이 불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예컨대, 비명예 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연곡사에 백일 기도하는 운세 부인, 기원을 위한 입산 과정에서 동학군의 용장 김개주의와 불문으로 태어나게 되는 환이, 이렇게 갈등의 구조가 시작되는 소설 <토지>의 발단 부분이라든가, 이 소설의 메인 캐릭터인 '서희'의 빈번한 절출입동 사건의 발단과 연결고리를 신사의 설정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은 소설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소설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 사상은 동학 혁명의 민간 신앙, 그리고 우리민족의 범신론적 사마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불교의 인간 존중사상, 즉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그 뿌리를 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방된 현실에 부리를 묻고 낙원을 건설하여야 하는 절친 민초들의 생명 의식이 불교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모든 만물에 부처 성질이 깃들 어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생명성 존중에 이 소설의 사상적 근간이 있음을 우리는 환기해도 좋을 것이다.

유 한 근  
(문학평론가)

##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 2일 서정주시인 팔순 축하연



서정주시인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미당 서정주 시인의 팔순 축하연이 12월 2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동국문학인회(회장 홍기삼)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황명수)가 마련하는 이 자리는 세미나와 축하연으로 진행된다. 「미당 서정주 시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세영(서울대)교수가 「미당시의 영원과 현실」을 이 승훈(한양대)교수가 「서정주의

초기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황현산(고려대)교수가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을 윤재웅(동국대)교수가 「바람과 풍류」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홍신선(수원대) 강우식(성균관대) 박상천(한양대) 박혜경(동국대) 교수들이 질의와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어지는 축하연에서는 시인 박재현씨가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를 발표하고 미당 시인의 대표시 가운데 「자화상」 「귀족도」 「무릎을 보며」 등을 불러 손

## 세미나·시낭송등 다채

속시킬 예정이다. 축하연에서는 시인 박재현씨가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를 발표하고 미당 시인의 대표시 가운데 「자화상」 「귀족도」 「무릎을 보며」 등을 불러 손속시킬 예정이다. 축하연에서는 시인 박재현씨가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를 발표하고 미당 시인의 대표시 가운데 「자화상」 「귀족도」 「무릎을 보며」 등을 불러 손속시킬 예정이다. 축하연에서는 시인 박재현씨가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를 발표하고 미당 시인의 대표시 가운데 「자화상」 「귀족도」 「무릎을 보며」 등을 불러 손속시킬 예정이다.

## 불교문화의 밤 개최

### 극단 「바람」 극장 건립기금 마련위해

18일, 중소기업회관 불교문화예술극장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불교문화의 밤'이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10층에서 열린다.

불교극단 「바람」이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불교예술의 전문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불교대중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불교문화의 밤」은 2부에서 육담선생의 극악, 승무, 신신법의 6명이 열연하는 연극 사문의 모(母)를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또, 3부에서는 가수 송춘희씨와 김원모씨의 아코디언 연주도 공연된다.

제2기 합창단원모집 불교소년소녀합창단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부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제2기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변성

기 이전의 소년·소녀로 12월 10일 오후 2시 본원에서 갖는다. 모집마감은 12월 10일 (문의: 02-723-1525)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맑고 향기롭게 공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는 소년소녀 가정울 위한 음악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공연을 지난 28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음악회에는 최우 범정 스님의 「나눔의 기쁨」에 대한 법문과 국악인 김명동, 작곡가 노영실, 가수 김광석씨가 출연해 맑고 향기로운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줬다.

불교시 낭송회 2일 해동문학회 해동문학회는 12월 2일 오후 6시 중구문화회관에서 제2회 불교시 낭송회를 갖는다.

(문의: 730-6924)

◇기사보러 「물심사실」입니다. 구독신청: 737-8881

# 山寺의 향기

불자들의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바로 그 비디오!! 사찰의 모든 것이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사찰이란 어떤 곳인가. 일주문·천왕문·금강문 등에는 무슨 뜻이 있고, 대웅전·적광전·극락전은 어떤 범당인가.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며, 어떻게 모셔야 하나. 오랜 동안 불교를 신해해온 신자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찰의 모든 것을 한 편의 비디오로 쉽게 배운다.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신문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1,600년 한민족 불교문화의 절은 향기가 배어난 영상과 평이한 해설. 김경동 명성음악의 깊이 있는 선율로 어울어진 현편의 감동시!!

주요 수록내용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 신문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주요 법기  
 법당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사원 내 주요 전각과 불·보살상  
 강원과 선원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행과정 등

정가 : 20,000원

**대정프로덕션** DAE JEONG FILM PRODUCTION  
 서울·중구 을지로 3가 302-2 승밭BD 601호  
 구입문의 : ☎ (02) 275-9459 · 265-9458